

On the large type font of "Gyo-sig-chu-bo-beob ga-ryeong"

“交食推步法〈假令〉”大字考

尹炳泰
高麗大圖書館司書

一. 마리에

이 大字를 究明코자 한 것은 실로 우연한 일이었다. 筆者의 年來의 宿願이던 韓國古活字本一覽¹⁾과 韓國古活字本圖錄²⁾의 資料를 整理하면서, 所謂 “丙辰字”의 調査에서, 이 大字의 字形이 特異하므로 因하여 究明한 바 이는 從來의 正統官鑄活字의 系譜³⁾에 오르지 아니한 새로운 鑄字임을 밝혀내었으며, 이 活字가 가지고 있는 問題는 많으나 一次豫備的인 報告로서 내놓은 것이다.

二. 交食推步法〈假令〉에 대하여

이 大字로 써온 活字本은 交食推步法〈假令〉이다. 이 책에 대하여는 일찍부터 世祖大王實錄의記事나 經國大典等 法典⁴⁾에 그 書名이 실려 있으며, 海東文獻總錄⁵⁾·古鮮冊譜⁶⁾·朝鮮圖書解題⁷⁾에 그 大略의in 解題가 실려 있어 이미 알려져 있는 책으로, 奎章閣에一部가 남아있는 孤本이다⁸⁾.

이 책은 일찌기 全州史庫⁹⁾에 收藏되었던 것이, 壬辰戰中에 無事히 남아서 海州¹⁰⁾·妙香山¹¹⁾·江華¹²⁾·鼎足山城史庫¹³⁾ 등으로 轉轉하다가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에 保管中인 奎章閣圖書 韓國本¹⁴⁾ 속에 包含되어 온 것이다. 全1冊(合計 105張)으로 크기는 38.8×23.8cm이며, 請求記號는 奎 67이다.

이 책 머리에는 아래와 같은 李純之의 序가 2張 붙어 있다(重要하므로 全文을 실른다).

交食推步法假令序

交食推步法及筭法歌詩皆我

世宗大王所製也蓋授時曆經立成諸數浩繁不便於觀覽且日出入則以北極地高下隨處各異而書雲觀只依中朝大統曆日出入用之極爲踈闊故

軫慮精思先測定我國漠陽北極出地三十八度少弱參考其二至晷影推步得日出入之分又於立成推演其數作爲新術其求盈縮差遲疾差加減差日出入分晨昏分半晝分定

限行度冬至赤道日道黃道日度之法皆不用立成而直求之極簡且精莫知端倪誠千古未有之

聖王也今我主上殿下撥亂返正繼承大統崇儒重道訓兵練卒治具畢張敎化大行一日謂臣純之曰筭法居六藝之一在學者所當習而今則不然雖宿儒老師滔滔不知其中日月交食天變之大者人皆見之而不知其推步之法

予常笑學業之不精今欲於天文地理醫藥卜筮凡諸理數之書悉皆作指南頒行於世使人無不學也又況曆乃家業乎雖

予世子亦不可不學爾純之在世宗朝專承曆法之事可與金石梯失於世宗所製交食推步法及筭誦作假令注解以啓臣等退作假令并着註解以進於是睿斷筆削定之真所謂以

聖繼聖貽厥嘉猷於後世尤以見殿下敬天勤民興學育才無所不用其極也

天順二年正月日嘉靖大夫禮曹叅判脩文殿提學臣李純之奉 教序

(이 序文은 東文選¹⁵⁾에도, 날자와 撰者를 除外한 本文部分만을 실렸음으로, 일찌부터 알려져 있다¹⁶⁾.)

序文이 끝난 다음, 算學發蒙이라는 題아래 九九合數九歸除法, 命日傍通이 13張 卷首에 있다.

다음은 交食推步法假令上이니, 모두 49張으로, 假令과 上은 小字로 雙書되어 있으니 이 책의 書名을 交食推步法이라 略稱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것 같다.

이 上의 版式을 보면 아래와 같다.

四周單邊. 半葉匡廓: 27.5×18.6cm. 有界. 9行 19字, 小字雙行. 大字(14字) 白圓圈有. 版心: 上下白口. 上下 内向黑魚尾(單線)「交食上」(張次)

이 版式을 보아 알 수 있드시, 使用된 活字는 大中小의 3種이 있으니, 大字는 이 論考에서 詳考하는 活字

요, 中小字는 甲寅字의 大小字이다.

이 上에는 第1~4張에 걸쳐 “正統九年歲次甲子爲元”이라 하여 “用數目錄”등이, 第4~45張에 “正統十二年丁卯八月朔食”이, 第46~49張에 이의 “距算三”이 실려 있다.

下의 卷首題 역시 上과 같이大小字로 되어 있으며, 모두 41張이다. 여기에는 “正統十二年丁卯八月望食”과 “距算三”이 실려 있다.

이 論考의 本意가 天文學이나 算法에 關한 것이¹⁹⁾主眼이 아니므로, 이 책의 體裁를 紹介하는 程度로 고친다.

이 책의 插圖로는 下의 第1張 앞면을 살았으나, 이는 大中小의 3種의 活字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까닭이다(第1圖參照).

이 책머리에 있는 序文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世宗의 所製¹⁷⁾인 交食推步法과 算法歌詩를 世祖의 命으로 世祖3年丁丑(1457) 12月24日甲寅에當時 禮曹參判이던 李純之와 副正이던 金石梯에게 議定케 하였던 것이¹⁸⁾, 다음 해(바로 다음 달)인 天順2年(世祖4年戊寅)正月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當時의 例로 보아 이 책의 印出은 序文이 이루어진 世祖4年(1458)이 틀림 없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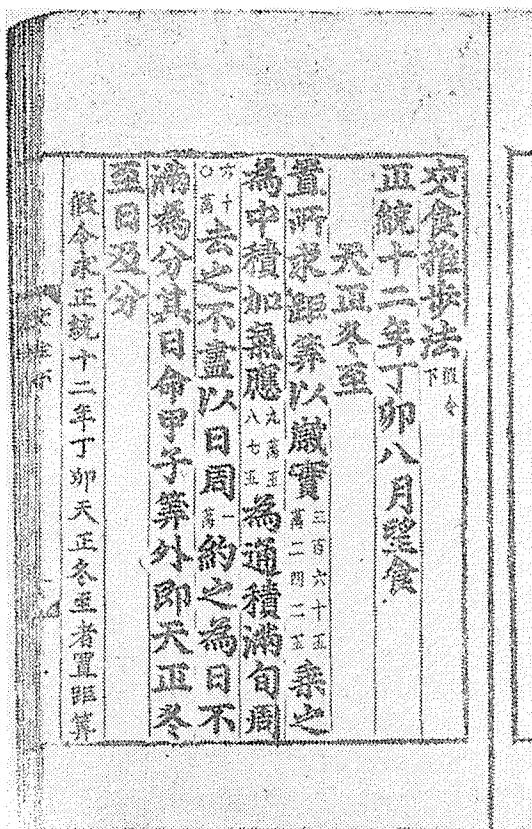


圖 1 交食推步法(假食下)卷首

거로는 世祖14年戊子(1468) 8月6日字 實錄記事¹⁹⁾에 講解律等 9種의 書冊을 崔灝元 安孝禮에게 各各 頒賜한 속에 이 交食推步가 包含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으며, 또 經國大典의 禮典에서 考試課目²⁰⁾속에 包含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三. 大字에 관한 問題들

이 論考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交食推步法(假令)의 印出에 使用된 大字의 究明에 있다.

이 活字의 名稱에 대하여는 따로히 다루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項을 나누어 考察해보기로 한다.

1. 書體와 字本

이 大字의 筆書者나 字本은 分明치 않으나 圖 2에서의 對照結果 趙孟頫의 松雪體²¹⁾에 가깝다. 이 插圖를 對照해보아 알 수 있듯이 世祖의 글씨로 알려져 있는 所謂 “丙辰字”²²⁾나, 姜希顏의 글씨로 알려져 있는 乙亥字 大字²³⁾, 德宗의 글씨인 金剛經大字²⁴⁾, 그리고 鄭蘭宗의 글씨²⁵⁾로 알려진 所謂 “乙酉字”²⁶⁾와는 전혀 다른 字體이며, 도리히 當時에 널리 行하여지고 있던 趙孟頫



圖 2 大字比較圖(令註末參)

의 글씨²⁷⁾에 가까우며, 松雪의 글씨에 能했던 安平大君 璞의 글씨²⁸⁾인 所謂 “庚午字”²⁹⁾의 字體와 너무나 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當時의 事情으로 보아 安平大君은 이미 死去한 터이며³⁰⁾, 世祖가 그를 慎하여하여 大君의 글씨로 된 活字까지도 녹여 改鑄한이상³¹⁾ 安平의 글씨일리는 절대로 아니다.

2. 代表的인 字體

이 大字를 쉽사리 鑑別할 수 있는 代表的인 글자를 들자면, 頻度順³²⁾으로 보아 “之·以·年·正”的 네자를 들 수 있다(圖3 參照).



圖 3 代表字

之는 甲寅字의 大字가 아닌가 할정도로 다음에 始作되는 劍의 처음이 曲線을 이룬것이 눈에 띄이며,

以는 다른 大字들이 丨/의 2劃으로 分明히 區分되 어보이는 것과는 달리 丶으로 一劃으로 쓴 것 같이 보이며,

年은 네번째 劍이 다른 大字의 丨파는 달리 橫으로 끄은 一이며,

正은 세번째 劍이 一이 아니고 丶으로 되어 있는 點이다.

이밖에도 많은 例示를 할수 있으나 頻度가 낮은 글자이므로 省略한다.

3. 活字의 材料

이 大字는 孫寶基博士³³⁾와 千惠鳳敎授³⁴⁾의 鑑別方法을 採用한다면 金屬活字이다. 그러나 이 活字를 鑄造한 金屬이 銅이냐 鋼이냐 또는 鉛이냐 하는 것은 쉽사리 判別할 수 없다. 所謂 “丙辰字”가 鉛이라면³⁵⁾ 그 印紋은 이와는 다르며, 도리혀 甲寅字나 乙亥字와 같은 金屬³⁶⁾으로 보는 것이妥當하다.

4. 만든 사람이나 機關

이 活字를 鑄造한 곳은 鑄字所³⁷⁾가 分明하며, 이를 命한 것은 世祖在位中에 鑄成되었다면 世祖임이 틀림 없다³⁸⁾.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確證의 資料는 아직 보지 못하였다.

5. 鑄造의 時期와 使用期間

이 活字의 鑄造의 時期는, 이 交食推步法<假令>이 最初印本이라는 確證³⁹⁾이 없는限 언제라고 斷言할 수는 없다. 이 交食推步法<假令>이 世祖4年戊寅(1458) 正月에 印出한것이⁴⁰⁾ 틀림없다면, 이 活字의 鑄造는 이 책을 訂은 大字의 鮮明度나 磨滅度⁴¹⁾로보아 世祖3年丁丑(1457)의 年末에 가까운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의

確證은 찾을수 없다.

이 活字의 改鑄나 補鑄가 있었는가는 알수 없다. 다만 이 大字가 中宗13年(1518)까지 存在했던 것만은事實이다. 이때에는 이 大字만의 印本으로는 남아있지 않으나 다른 大字와의 混用으로 印出한 白鹿洞規解⁴²⁾와 같은 책이 實存해 있다(이 白鹿洞規解의 大字는 따로論及이 있을 것임으로 거기에 미룬다).

따라서 이 活字가 자주 利用되지는 않았지만 60年以上이나 存在한 것은 確實하지만 그 마지막에 대하여는 確證이 없다.

6. 다른 印本들

이 大字만으로 印刷된 책은 아직껏 알려진것은 없다 그러나 世祖4年(1458)을 中心으로 하여, 大字와 甲寅字나 乙亥字의 中小字와의 混用本을 찾아보면 더 나올 수 있는것만은 事實이다. 全州史庫 藏本中⁴³⁾ 活字本의 現物이 實存·傳來되지 않는 책 중에서 帝範⁴⁴⁾과 같은 책이나, 韓國書誌年表⁴⁵⁾로도 쉽사리 檢索할 수 있는 易學啓蒙要解⁴⁶⁾·初學字會⁴⁷⁾·武經⁴⁸⁾등의 大字包含 印出本이 나온다면, 再考의 餘地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前述한 白鹿洞規解와 같이 이 活字가 混用된 것이⁴⁹⁾ 確實한 以上, 다른 大字들에게서 이 活字가 利用되거나 틀림없다는 確證은 없으므로 再檢討가 되어야만 할것이다.

한가지 附言할것은 當時의 活字本을 版下로 한 覆刻本⁵⁰⁾이 實在하는 以上 그 原本의 活字가 究明될 실마리는 있다.

四. 字名에 대하여

이 大字의 字名에 대하여는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⁵¹⁾이나 韓國古活字集⁵²⁾에서는 所謂 “丙辰字”로 알려져 왔으며, 서울大學校開校 二十周年記念 貴重圖書展示會 展示圖書目錄⁵³⁾에서는 丙辰字가 아닌가하는 慎重性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從來에 後印本·再印本으로만 알려졌던 資治通鑑綱目⁵⁴⁾의 印本이 알려지고, 또 이 綱目的 原字體의 對照 檢討가 이루어짐으로서, 이 大字의 字名이 所謂 “丙辰字”가 아니라는 것은 前記圖2를 參照하여도 쉽사리 알수 있다.

그러면 이 活字名을 干支로만 表示할수 있는가 하는 것에 對해서는 反對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이 活字의 名稱에 對하여는 實錄⁵⁵⁾이나 羣書標記⁵⁶⁾같은 權威있는 書誌나 增補文獻備考⁵⁷⁾에 言及이 없으며, 또 이 活字의 正確한 鑄造年代가 밝혀지지 아니한 것은 두고라도 交食推步法<假令>의 印出이 世祖 4年 戊寅(1458)正月이면 그 前年인 世祖3年 丁丑(1457)의 年末까지에는 이 活字가 틀림없이 鑄造되었음이 確實한 이상 丁丑字를 이 活字의 字名으로 다시 採擇할수는 없다⁵⁸⁾. 이 丁丑字

는 이미¹ 德宗의 筆書體大字를 命名⁵⁹⁾하여 떠린 以上 이 名稱의 訂正 없이는 混用을 일으키기 쉬운 까닭이다.

筆者는 여기에서 이 活字의 名稱을 臨時로 “交食推步法大字”로 假稱할 것을 提案하여, 앞으로 이보다 오래된 世宗·文宗·端宗 年間의 이 大字의 印出本이 出現할 때와 그 根據의 確認을 기다려서 正式으로 再命名 할 것을 提案하는 바이다.

五. 끝으로

이 活字에 대하여는 아직 宪明되지 아니한 數量은 問題가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의 빛나는 活字文化⁶⁰⁾의 斷面을 宪明키 위해 이 小稿를 報告하는 바이다.

具體的으로 남은 問題들에 대하여는 本文中에서 隨時로 言及하였으므로 再記하지 않는다. 同學의 叱正을 빙니다.

註

- 1) 筆者 編. 未刊原稿
- 2) 同上
- 3) 不完全하지만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刊行物에 發表되어 다루어져 있다. 그 中 重要한 것만 든다.
 - ㄱ. 金斗鍾. 近世朝鮮後期活字印本에 關한 綜合的 考察. 大東文化研究, 第4輯, p.1~73. (1967. 7)
 - ㄴ. 金元龍. 李氏朝鮮 鑄字印刷小史; 鑄字所是 中心으로. 鄉土서술, 第3號, p.123~170. (1958. 12)
 - ㄷ. 金元龍. 李朝後期의 鑄字印刷. 鄉土서술, 第7號, p.7 ~66. (1959. 12)
 - ㄹ. 金元龍. 韓國古活字概要. 서울, 乙酉文化社, 1954. 36, 15p. (國立博物館叢書, 甲 第一)
 - ㅁ. Kim, Won-yong. Early movable types. In Korea.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A History of Korean alphabet and movable types. Seoul, 1970. Part II.
 - ㅂ. 前間恭作. 朝鮮の板本. 福岡, 松浦書店, 昭和12(1937) 196p.
 - ㅅ. 白麟. 韓國圖書史研究.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9. 228p. 特히 p.173~225. “李朝時代의 鑄字印刷”
 - ㅇ. 白麟. 朝鮮後期 活字本의 形態書誌學的研究: 宣祖 25~隆熙 4年 사이의 奎章閣所藏圖書本 中心으로. 上·下. 韓國史研究, 3, p.123~160; 4, p.133~166. (1969. 3·6) 이 論文은 壬辰戰以後 活字本에 關한 力作이다.
 - ㅈ. 白麟. 韓國古活字本에 對한 研究. 서울大學校圖書館報, 제3권, p.3~51. (1965. 12) 이 論文은 壬辰戰以前 活字本에 關한 것이다.
 - ㅊ.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 서울大學校開校二十周年記念 貴重圖書展示會 展示圖書目錄. [서울, 1966] 146, 89p.
 - ㅋ. 손보기. 한국의 고활자. 서울, 한국도서관학연구회, 1971.
 - ㅌ. 孫寶基. 韓國印刷技術史. 韓國文化史大系 Ⅲ 科學技術史. 서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p.965~1061.
 - ㅍ. 李聖儀. 古銅活字標本書目. 華山書林, 4286(1953) 私家版 40部限定本.
 - ㅎ. McGovern, Melvin. Specimens of Korean movable type printing. Dawsons, 1966.
 - 4) ㄱ. 經國大典 卷之三 I.7B. “禮典·陰陽科初試 天文學”的 “算”으로 交食推步假令.
 - ㄴ. 同上 I.8A. 覆試 天文學五人.
 - ㄷ. 同上 I.37B. “取才”의 “算”으로 交食推步假令.
 - ㄹ. 繢大典 卷之三 I.15A. 禮典 諸科 陰陽科 初試 算 “同大典.”
 - ㅁ. 同上. I.16A. 陰陽科 覆試 算 “同初試.”
 - ㅂ. 大典會通 卷之三 禮典 諸科. I.15A. 陰陽科初試 (算) 原 “…交食推步假令”
 - ㅅ. 同上. I.15B. 陰陽科覆試. (算) “同初試.”
 - ㅍ. 金然. 海東文獻總錄. 서울, 學文閣, 1969. 影印本. p.463 ~464.
 - ㅎ. 前間恭作. 古鮮冊譜. 東京, 東洋文庫, 昭和19(1944) 第一冊, p.530~531. (東洋文庫叢刊第十一)
 - Ҽ. 朝鮮總督府. 朝鮮圖書解題. 京城, 朝鮮通信社, 昭和7(1932) p.334. 其他版에도 있음.
 - ը. 筆者編. 韓國古書綜合目錄. 서울, 大韓民國國會圖書館, 1968. p.70.
 - ։ 宣祖 21年과 24년의 曝曬形止案이 남아 있다.
 - ։ 宣祖 27년의 形止案이 남아 있다.
 - ։ 宣祖 32년 및 34년의 形止案이 남아 있다.
 - ։ 宣祖 36년의 形止案과, 宣祖 39~仁祖 11年사이의 摩尼山史車形止案이 남아 있다.
 - ։ 顯宗元年~光武 10年사이의 形止案이 남아 있다.
 - ։ 奎章閣圖書韓國本 總目錄.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附設 東亞文化研究所, 1965. 卷首의 白麟씨의 “奎章閣圖書韓國本沿革” 參照. (署名은 淚消되었음)
 - ։ ㄱ. 東文選. 徐居正, 等編. 서울, 廣熙出版社, 1967. 影印本. 下, p.83.
 - ㄴ. 東文選. 徐居正, 等編. 木版本. 卷之九十四. I.23A~24B.
 - ։ 엮. 國역 등문선. 徐居正, 等編.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69. (고전국역총서, 31) Ⅷ, p. 401~402. “교식주보법 가령서”로 國譯된.
 - ։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第一百六十 七政策外篇中 交食第三等.
 - ։ 世祖大王實錄 卷 第十 I.29A(影印本 7~p.247) 世祖 3年 丁丑12月甲寅(24日) 命禮曹參判李純之副正金石梯議定日月交食推步法
 - ։ 上揭書 卷第四十七 I.13A·B(影印本 8~p.205) 世祖14年 戊子8月癸巳(6日) 傳曰律學解頤其賜于曾受講解律者庶思慎賜兵要崔灝元安孝禮各賜講解律學解頤交食推步本草得效方五行精紀三辰通載太乙遁甲金鏡式一件且今後書冊頒給時灝元孝禮亦並賜之
 - ։ 註 4 同
 - ։ 趙孟頫의 署名이 있는 七月八章章十一句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藏 신암C13-A118) 및 和漢名家習字本大成. 東京, 平凡社, 昭和 8. 第一卷 所收 “蕭山縣學重建大成殿記” 및 〔三門記〕 參照. 제록스의 복사가 나오지 않아 圖版은 略했음.
 - 여기에 附言한 것은 書體의 確認에 있어 꼭 必要한 方法의 하나는同一人の 글씨를 제록스複寫에 의해 對照코자하는 글자들을 集字하므로써 容易하게 判別하는 方法이 있다. 이러한 方法은 筆者が 清涼順宗心要法門의 書體對照時와 “松雪體云云”에 對한 反論時에 使用한 方法인바, 이 論考 插圖 2를 보면 그 方法이 妥當함을 더욱 알게 될 것인즉, “個個의 글자의 集合으로 書體를 確認할 수 없다” 함은 書體에 있어서 많은 集字碑나 法帖들이 標本이 되어 있는가를 모르고 하는 말인 것이다.
 - 이러한 面에서 앞으로의 木版本에 있어서나 活字本에 있어서의 年代推定에 있어 書體의 確認方法은 複寫에 의한 集字式方法이 보다 科學的方法인 것이며, 肉感的方法이 非科學의이며 非學術의 研究方法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22) 世祖가 晉陽大君으로 潛邸時 世宗의 命에 의해 쓴 字本

- 을 鉛으로 鑄造한 活字로 “丙辰字”로 잘못 命名된 것이니, 따로히 反論이 準備되었으므로 別論한다.
- 23) 이에 대해서는 李仁榮, 乙亥字小考, 書物同好會會報, 第十七號, p.26~29. (昭和 17. 9) 및 白麟, 韓國圖書館史研究,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9. p.181~184. “7. 乙亥字”에 차세히 言及하였다.
- 24) 이 金剛經大字는 德宗이 쓴 것을 그 父王인 世祖가 다시 그대로 배낀 것을 字本으로 鑄造한 것이다.
- 25) 鄭蘭宗의 글씨가 分明한 것은 韓懲禱가奉 教撰한 “興天寺新鑄鍾銘<并書>”를 鄭蘭宗이奉 教書한 것이 있으니, 그 拓本 1帖이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에 收藏되어 있다. 請記號 古 1740~6.
- 이에 의하면 “於”字 등에서 完全히 글씨體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 26) 이 “乙酉字”에 대해서는 白麟 上揭書. p.184~185. “8. 乙酉字”에 차세하다.
- 27) 筆者編,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에서 주려보면
- p.22 文宗即位年(1450) 11月10日 安平大君 璞…趙子昂眞草千字等 書法板本을 올립. 校書館에 보내 模印을 許함.
- p.23 世祖元年(1455) 10月21日 鑄字所에 命하여 校書館所藏의 …趙孟頫의 證道歌, 眞草千字, 東西銘…및 永膺大君家所藏인 趙孟頫의 赤壁賦 等을 成均館으로 印送함.
- p.24. 世祖3年(1457) 1月23日 趙孟頫가 쓴 證道歌, 紫芝歌 木板을 校書館에 藏하여 印出廣布케 함.
- p.25 世祖5年(1459) 5月10日 諸家法帖을 模畫하여 刊印코자 함.
- 同 6月24日 趙學士<孟頫>眞筆 眞草千字文을 中外에 求함. 模刻키 위함.
- 同 9月20日 弗善 洪應 等 十一人에 켜 法帖 각一部를 賦함.
- 이를 보아도 世祖在世時 趙松雪의 글씨가 널리 行하였다음을 알 수 있다.
- 28) 金舜東, 韓國故事大典, 大田, 回想社, 1969. “十九書畫考” p.700에 “李瑣의 書法이 奇絕하여 天下第一이라稱함. 趙子昂을 模倣하여 豪邁함이 같았음”이라 하였고 正祖, 弘齋全書卷百六十五 “日得錄五 文學五” l.19A·B에 서
- 安平書爲國朝名筆之冠無容更評而史纂刊本即亦其筆也結構古雅點畫謹嚴遒勁而圓活蒼健而婉媚鍾楷蔡隸兩美實竝此又書中別是一體梓板已無傳印本亦絕罕在今可珍不翅如鴻都之經文予甚喜此字欲刻鑄活字但計其各字頭多闕少難於補足耳
- 라 할정도이며, 史纂이 그의 筆書임을 들고 있다.
- 29) 千惠鳳, 庚午字考, 成均館大學校 論文集, 人文·社會系, 第13輯, p.141~160. (1968)에 차세하다.
- 30) 安平大君은 端宗1年(1453) 首陽大君(世祖)에 의해 그子가 江華에 抑置되었다가, 年36歳에 賦死되었다.
- 31) 成宗大王實錄卷第四十九 l.10B~11A(影印本 9~p.167~8) 成宗5年甲午11月 “癸酉(略) 庚午字以璫之所寫己毀之命姜希顏寫之鑄成乙亥字是也(略)”라 한 것과 같이, 庚午字를 녹여서 乙亥字를 鑄造했다.
- 32) 筆者は “校書館의 字數에 關한 研究”를 통해 그 頻度順을 調査하였고, 그 1次로生生字에 關한 것을 “남대문도서관보(組版中)”에 寄稿하였다.
- 33) 筆者の 浮碧樓重修記와 같은 活字 印本들: 反聚珍字論, 圖書館學, 第三輯, p.64~65. (1973. 12)에서 直接指導받은 바로 授用하였다.
- 34) 千惠鳳, “古文真寶大全에 대하여” 1973. 11月 歷史學會月例會發表要旨, 油印본.
- 35) ㄱ. 成虎, 儒齋叢話卷之七 l.12A에 “命世祖書綱目大字

- 祖時爲世首陽大君遂鑄鉛爲字以印綱目綱今所謂訓義也(略)” ㄴ. 增補文獻備考卷之二百二十 l.32A에 “又命 世祖書綱目大字鑄鉛爲字以印綱目即今所謂思政殿訓義也(影印本. 下 p.569 下)
- 36) 이 甲寅字와 乙亥字의 金屬成分은 實物이 남아있지않아 그正確한 化學成分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檢近의 癸未字 鑄字跋에 “範銅爲字”라 한것과 金宗直의 甲辰字 新鑄字跋에 “範銅爲字”라 한것에 의해 그 主成分이 銅인 것으로通行되고 있을 뿐이다.
- 37) 이 活字의 鑄造의 時期로 생각되는 當當時에는 鑄字所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問題가 있다. 따로히 論考한다.
- 38) 世祖初에 일어난 일일것이므로 確實한 根據가 있을때까지는 留保한다.
- 39) 위와 같은 理由이다.
- 40) 李純之의 序文에 의한 推測이다.
- 41) 活字의 磨滅度와 版心의 魚尾의 形式變化에 따른 年度推定은 이미 여러번 試圖된바 있다.
- 42) 奎章閣圖書 套7004. 活字本. 1冊(全14張) 이 책의 成立은 中宗13年(1518)에 틀림없으며, 明宗14年(1559)頃에 또再刊된 것이다.
- 43) 全州史庫의 舊藏本은 “萬曆十六年戊子九月初一日 全羅道全州史庫曝曬形止案”의 天字橫부터 吳字橫의 記錄에 의해 알 수 있다. 現在 이 中에 奎章閣圖書中에서 檢出치 못한 印本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이다.
- (1) 宣明曆要 1冊
 - (2) 宣明曆經 1冊
 - (3) 宣明曆步交會 1冊
 - (4) 援時曆歲 上·下 1冊
 - (5) 五星通軌用數目錄 1冊
 - (6) 援時曆經 上·中·下 1冊
 - (7) 回回曆法 1冊
 - (8) 回回曆書 1冊
 - (9) 回回曆各年交會 1冊
 - (10) 回回曆經度立成 上·下 2冊
 - (11) 回回曆經度立成 上·中·下 3冊
 - (12) 北征錄 二件 4冊
 - (13) 初學字會 二件 2冊
 - (14) 帝範 1冊
 - (15) 觀音現相記 全三件中 二件 2冊
- 44) 一名 唐太宗帝範이라고도 하며, 訓辭와 함께 合刊된 訓練都監字本이 있는 것으로 보아 訓辭大字와 같은 活字로 印出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未見이다.
- 45) 筆者編,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256p.
- 46) 上揭書. p.25의 世祖4年(1458)戊寅 “8月26日 新印 易學啓蒙要解是頒賈(同上 八月辛巳, 國朝寶鑑卷一一, 易學啓蒙要解 御製易學啓蒙要解序, 跋(崔恒))”
- 47) 上揭書 p.25의 同年 10月15日 參照.
- 48) 上揭書 p.25의 世祖5年(1459)己卯 “7月15日 校書館으로 하여금 武經 十八件을 刊印케 하여 咸吉道에 보냄.(世祖實錄卷一七 世祖五年七月甲午, 國朝寶鑑卷一一)”。이라 있으나 木板本일 可能性도 있다.
- 49) ㄱ. 註42 參照.
- ㄴ. 明宗~宣祖間의 甲寅字와 乙亥字의 混用도 그 例이다.
 - ㄷ. 純祖以後의 榜目에 壬辰字와 實錄字의 混用도 그 例이다.
- 50) 成化二年丙戌(1466, 世祖11年)二月上諭 崔恒의 跋이 있는 易學啓蒙要解의 木版本 4卷2冊이 그 例이며, 이 책의 大字는 交倉推步法<假令>의 大字와 너무나 닮아 있다.
- 51) 奎章閣圖書 韓國本 總目錄. 서울,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附設 東亞文化研究所, 1965. p.539에

(12면에 계속)

21) ~의挿入誌 또는附錄誌

그雜誌가挿入誌 또는附錄誌일 境遇 그原誌名을 ISSN으로記入한다.

22) 挿入誌名 또는附錄誌名

挿入誌 또는附錄誌를 가지고 있을 境遇 그誌名을 ISSN으로插入한다.

23) 關聯誌名

위에記述한誌名欄의 어디건 記入키 어려운誌名을 記入한다.

24) 出版事項

出版者, 發行地를 로마字로 記入한다.

25) 抄錄 서어비스에 依한 Coverage

이分野는 暫定的으로抄錄 서어서비스機關으로부터情報를 獲得하였을 때에 記入한다. (이러한 테이타要素는 1970년의 INSPEC調査에 依한 報告와는若干相違하다. INSPEC의 調査報告에 依하면 Data Element는 34項目이 있었으며, Level 0부터 Level 3까지 4段階로 나누어져 있다. Level 0은 機械 파일에 最少限必要하다고 생각되는 Data로서 11項目, Level 1은 誌名이나出版者를 識別하고 ISSN을維持하기 위한基礎의인 Data로서 Level 0을擴張한 18項目의 Element을 包含한다. Level 2는 Microform Reference File(MRF)이라고稱하며 16mm의 Roll Film으로 1個誌에 대하여 3 Coma가割當되며, 第 1 Coma는 表紙, 第 2 Coma는 Title page의 各 Copy, 第 3 Coma는 Level 3의 詳細한 Data를 記入한 Data Sheet의 Copy로 되어 있다. Level 3은 Level 1의 情報內容을 더욱擴大

한 것으로서 32項目으로 되어있다. 前記의 ISDS의暫定指針에 依한項目의로서는 이와 比해 刊行頻度, 論文의 言語, 原語에 依한誌名등 主로 Level 2로插入할豫定의 Data Element가 없어졌다)

다. ISDS의擴張計劃

ISDS計劃은 現在繼續刊行되고 있는 科學技術關係의逐次刊行物부터 實施하기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科學技術以外의 分野에도擴張할 것이고 그후廢刊될 것도 包含되게 되어있다.

그리고 ISSN을割當함에 있어서는 이미前述한 대로 Ulrich's International Periodicals Directory 1971年版의 全逐次刊行物에 관하여 實施되고 있으므로科學技術以外의 分野의逐次刊行物에 대하여서도 ISSN만의利用은可能하다.

以上 ISDS의概要와 그計劃에 관하여 說明을 하였으나 詳細한點에는 不明確한事項이 많이 있을 것으로思科되는 바이다. 今後우리나라에도 ISDS의國內센터가設置되어 實施하게 될境遇이內容이多少나마 參考資料가 될 수 있다면 多幸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参考資料>

1. Scienced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o.34 p. 8-13, 1973. 11.
2. UNIST International Serials Data System. UNIST: Newsletter No.1, p. 6-7, 1973
3. Publication of "Guidelines for ISDS" Ibid No.2 p. 2, 1973.

(6면에서 계속)

- 52) 李潭周編. 韓國古活字集. 1967. p.5에 第5圖로 “丙辰字(鉛活字)” 아래에例示되어 있다.
- 53)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 서울大學校開校二十周年記念貴重圖書展示會 展示圖書目錄. [서울, 1966] p.6의 “丙辰字”에서 이交食推步法(假令)을例示하였으나 여기에서는 “大字는丙辰字?”라고 조심스러운表現을하였다.
- 54) 7. 物寶第552號. 第十九下 零本1冊.
7.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藏 石洲文庫本. 貴17. 第一上~二上·三下~八中·十一上~五十九下. 零本69冊. 이石洲文庫本은 1972年度에 文化財管理局에 申告하였으나 文化財専門委員會에 의해 아직껏 物寶指定이 되지 아니하였다.
- 55) 朝鮮王朝實錄에서 다루어진 것으로는 甲寅字, 甲辰字, 綱目大字, 庚午字, 庚子字, 庚辰字, 壬未字, 壬酉字, 戊申字, 生生字, 辛卯字, 壬申字, 壬辰字, 丁酉字, 整理字, (以上 가나다順) 등등이 있다.
- 56) 正祖. 燝書標記. 서울, 學文閣, 1970. 影印本. (弘齋全書卷一七九一~八四)에는 上揭註以外에 乙卯字와壬寅字

가追加되어 있다.

- 57) 増補文獻備考. 弘文館, 祜輯 校正. 서울, 東國文化社, 1964. 影印本. 下 p.569~571에 上揭註以外에 丁亥字, 壬丑字, 韓構字를 더 들고 있다.
- 58) 千惠原. 丁丑字次. 歷史學報, 35·36合輯, p.269~291. (1967. 12)

- 59) 德宗筆書體大字에 대하여는 別途로詳論하므로略한다.
- 60) 筆者. 高麗金屬活字本과 그起源. 도협월보, v.14 no.8 p.8~12. (1973. 8)뿐만 아니라 註 3에서引用한 여러著作의序頭에서 모두 밝힌바 있다. (1974. 7. 8 稿了).

※ 圖 2의 說明(左로부터)

1. 所謂“丙辰字”
2. 訓辭의 大字
3. 所謂“丁丑字”
4. 交食推步法(假令)大字
5. 所謂“乙酉字”大字
6. 所謂“庚午字”(크기는 無視하도록)